

홍콩 및 베트남의 무역·투자 환경 조사

- 신현수 연구위원(동향분석실)

1. 출장 개요

□ 개요

- 출장자 : 신현수 연구위원
- 출장지역 : 홍콩·베트남
- 출장기간 : 2012년 2월 26일(일)~3월 4일(일) (6박 8일)
- 출장목적 : 세계의 다양성을 포용하는 하이브리드 경쟁력을 갖춘 홍콩과 신흥시장으로 빠른 부상을 보이고 있는 베트남의 무역, 투자, 기업환경 및 경제상황 변화 등을 조사하여 2020년 무역발전비전을 위한 전략수립에 활용

□ 일정 및 방문기관

- 2월 26일 : 인천공항 → 홍콩 도착
- 2월 27일 : Hong Kong Trade Development Council 방문(Shirley Ng 매니저)
코트라 홍콩 무역관 방문(손수득 관장, 이주상 과장)
- 2월 28일 : 한국은행 홍콩지사 방문(이명희 부국장)
Hong Kong Convention and Exhibition Center 방문
- 2월 29일 : 홍콩 출발 → 베트남 호치민 도착
- 3월 1일 : KOCHAM(호치민 한인상공인연합회) 방문(김순옥 국장)
한국무역협회 호치민지부 방문(홍성해 지부장)
- 3월 2일 : 코트라 호치민무역관 방문(허병희 관장, 김도훈 전문위원)
한국무역보험공사 호치민지사 방문(류동운 지사장, 최승일 부지사장)
- 3월 3일 : 베트남 출발
- 3월 4일 : 인천공항 도착

2. 홍콩 방문 내용

(1) Hong Kong Trade Development Council

□ 홍콩무역발전국의 역할과 기능

- 홍콩무역발전국은 기업에 국제 비즈니스를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, 구체적으로 홍콩기업에 정보를 제공하고, 온라인 마켓 플레이스를 제공하며, 기업과 고객을 연결시켜 주는 기능을 하고 있음.
- 홍콩무역발전국은 세계 약 40여개 사무소를 설치하고 있고, 중국 내 11개 지사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.

- 12만명 이상의 양질의 공급업체 리스트를 보유
- 100만명 이상의 바이어가 등록된 마케팅 플레이스를 보유
- 산업별 15종의 간행물을 보유하고, 매년 세계 각국에 5백만 부 이상을 발행

□ 중소기업을 위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

- 홍콩종합전시장에 위치한 중소기업인 연수센터(SME Training Centres)는 홍콩의 중소 기업체들을 위한 일년 과정의 비즈니스 연수 프로그램과 워크숍을 운영하고 있음.
- 또한, 홍콩 무역발전국의 다양한 서비스와 간행물을 이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홍콩내에 중소기업인 연수센터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음.

□ 중소기업 정책

- 홍콩은 모든 기업을 동등하게 지원하므로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정책은 없다고 할 수 있음.
- 홍콩의 중소기업은 제조 중소기업보다는 서비스 중소기업이 많은 편임.
- 제조 중소기업의 경우 공장은 중국내 심천 등에 입지하고, 행정적 지원을 하는 지사가 홍콩에 입지하는 경우가 많음.

□ 한중 간 교역현황

- 홍콩시장의 우리나라 전체 무역흑자 기여도는 아시아 외환위기 이

후 상승함.

- 2010년 한국은 홍콩과의 교역에서 102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함.
 - 홍콩은 한국의 무역수지 흑자국 2위이며, 한국은 홍콩의 제 6위 교역국으로, 2010년 홍콩-한국 무역총액은 240억달러를 기록함.
- 홍콩-중국 간 CEPA체결, 이중과세 방지협약 체결과 홍콩의 위상 강화
- 홍콩과 중국 간에는 2010년 5월 CEPA가 체결되어, 인증 및 의료산업을 포함한 44개 분야의 시장개방과 무역투자 편리화를 주요 내용으로 2011년 1월 1일부터 발효됨.
- 또한 홍콩과 중국간에는 이중과세 방지협약이 체결되어, 대략 2007년 이후 발생한 소득부터 적용되어 오고 있음.
- 이러한 경제자유화 조치들은 홍콩을 경유하여 중국에 상품을 수출하거나 자본을 투자하는 인센티브를 높임으로써, 중개 무역과 중개 투자처로서 홍콩의 위상을 더욱 강화시킬 것으로 예상됨.

(2) 코트라 홍콩 무역관

- 세계 최대 중개무역항/자유무역도시
- 홍콩의 무역규모는 작년에 약 8천 5백억 달러에 달했는데, 이 중 95% 이상이 중개무역의 형태를 띠고 있음.
 - 중개무역의 대부분은 중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.
 - 홍콩은 기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회사 개설이 자유로워서 중개무역

을 위한 홍콩법인 중 'paper company'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짐.

- 홍콩 제조업의 경우 공장운영은 대부분 중국 심천에서 하고, 홍콩에서는 행정적인 뒷받침만 하는 경우가 많음.
- 홍콩은 세계 최대의 중개무역항으로 무역과 외환거래에 대한 규제가 없고, 특히 사후 신고만으로 통관절차가 완료 가능함.
- 담배, 술, 메틸알콜, 탄화 수소 등의 유류제품 외에는 무관세임.
- 홍콩은 미국 헤리티지 재단이 발표하는 세계 각국의 경제자유도 평가에서 2012년도에 18년간 연속 1위를 차지할 만큼 최고의 자유경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.

□ 홍콩은 중국시장 진출의 교두보

- 홍콩은 아시아 제2위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지역이며, 2010년 국제경영개발원으로부터 싱가포르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경쟁력 있는 도시로 선정됨.
- 무역은 물론 투자의 경우에도 홍콩의 발전은 중국을 배경으로 하는 경향이 있음.
 - 중국은 초기 직접투자를 하기가 어렵고, 나갈 때도 사업청산이 쉽게 되지 않으므로, 기업들은 중국에 직접 투자하기 보다는 홍콩을 활용하고 경유하여 투자함.
 - 즉 홍콩에 지사를 설립한 후, 이 회사가 중국에 투자하면 법적, 제도적으로 이득이 있음.
 - 마찬가지로, 중국의 자본가들도 중국은 외환자유화 및 자본자유화가 아직 충분하지 않으므로 중국에서 세계로 직접 투자하기 보다

는 홍콩을 경유하여 세계에 직접투자하면 이득이 있음.

○ 최근 수년 간 홍콩 내 외국계 기업의 회사설립이 더욱 증가하고 있음.

- 이는 홍콩-중국 간 CEPA체결로 인한 홍콩법인의 중국진출에 대한 인센티브 증가가 큰 매력으로 작용함.
- 또한, 홍콩이 중국 광동성에 인접한 지리적 이점 및 각종 인프라 시설의 발달도 외국기업의 홍콩진출이 증가하는 중요한 요소임.

□ 홍콩에 법인 설립시 장점은 다음과 같음.

- 세금이 없음.
- 관세가 없음.
- 법인세가 16.5%로 아시아에서 가장 낮은 수준임.
- 영어가 상용어임. 이는 외국계 기업에게는 가장 중요한 요소임.

□ 홍콩이 금융 허브로 발전한 원인

- 영어가 공용어이고, 우수한 인력을 쉽게 조달 가능함.
- 시장이 있고, 정부의 규제가 없다는 점.
- 검은 돈이든 깨끗한 돈이든 “돈”이 몰리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는 점.

□ 홍콩의 생활여건

○ (부동산) 홍콩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30평대가 약 20억원, 월세는 28평형이 월 600만원 정도로, 주거여건은 가격이 비싸다는 점에서 열악함.

- (교육제도) 홍콩에는 약 50개 정도의 국제학교가 있으나, 초기 정착한 외국인 자녀들은 국제학교 입학하기가 쉽지 않음.
 - 이는 향후 홍콩의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음.
- (의료) 홍콩 공공의료기관은 외국인의 경우에도 응급으로 가는 경우 무료이고, 사립병원의 의료비도 한국보다 저렴한 등 정부의 의료지원은 한국보다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.

(3) 한국은행 홍콩지사

□ 홍콩내 한국 금융기관의 위상과 한국은행의 역할

- 외환위기 이전에는 홍콩내 한국 금융기관이 100여개가 있었으나, 현재는 인건비 등으로 인한 적자로 제 2금융권을 포함해 20여개 기관에 불과함.
- 한국은행 홍콩 지사의 역할은 국제금융시장 및 거시경제 정보를 수집하여 서울 본사에 보고하는 것이고, 정보수집업무를 보조하는 차원에서 일부 자산거래도 운용함.

□ 유럽 경제위기의 전이 가능성

- 유로존 경제는 전체적으로 리세션 국면에 접어들고 있고, 앞으로 상당기간 동안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.
 - 중국의 주요 지도자들도 유럽의 경제위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.
 - 그러나, 유럽에는 돈이 풀려서 자금이 풍부하고 유럽은행도 자금사

정은 어렵지 않아 유럽의 위기가 금융시스템의 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을 거의 없을 것으로 평가됨.

· 예컨대, 유럽의 은행들은 디레버리징의 차원에서 대출을 줄일 가능성은 있으나, 전체적으로 유동성이 풍부한 실정이어서 금융경색에 따른 금리 상승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됨.

□ 중국의 성장패턴의 변화

○ 중국은 12차 5개년 계획기간동안 연평균 7.5%의 경제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음.

○ 중국은 장기적으로 투자 중심에서 소비중심으로 성장패턴을 전환할 예정이지만,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을 변함없이 유지해 나갈 전망이다.

- 중국은 성장원천의 40%를 차지하는 투자의 효율성이 낮아지고 있으므로 점차 소비위주의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음.

- 그러나, 중국은 투자에 기반한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며, 이 과정에서 소비활대를 보완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전망됨.

- 투자형태는 기존의 동부연안 중심의 수출을 위한 투자 중심에서 서부 중심의 내수형 인프라투자도 병행될 것으로 예상됨.

□ 홍콩의 가공무역의 배경

○ 홍콩의 가공무역이 활성화된 배경에는 중국경제가 자리잡고 있음.

○ 홍콩의 중개무역상은 중국 문화와 중국내 수요구조를 잘 아는 홍콩인일 가능성이 높음.

- 우리나라의 기업이 홍콩의 중개상을 경유하여 중국에 수출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보다도 중국내 수요를 직접 파악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임.

□ 중국경제의 배후와 홍콩 금융허브의 배경

- 홍콩이 금융허브로 부상한 이유도 그 근거에는 중국 경제가 자리잡고 있음.
- 이처럼 홍콩의 여건은 우리나라의 여건과 크게 다르므로 홍콩을 벤치마킹하여 서울을 금융허브로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.
 - 다만, 홍콩이 중국과 1국 2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제자유화 및 중국경제의 부상을 바탕으로 금융허브로 부상했듯이, 예컨대 송도를 한국과 1국 2체제를 만들어 경제자유화를 토대로 금융허브로 만드는 상상은 해 볼 수 있으나 그 성공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.

□ 홍콩의 환율·금리 정책과 금융허브의 배경

- 홍콩은 홍콩달러를 미국 달러화에 고정시키고 상하 밴드 영역내에서 환율의 미세조정을 허용하는 페그 환율제도를 운영하고 있음.
 - 홍콩 통화위원회(Hong Kong Monetary Authority)는 고정된 환율을 유지하기 위하여 미국 달러의 초과수요 혹은 초과공급이 발생하는 경우 외환시장에 지속적으로 개입함.
- 홍콩 달러의 발행권은 3개의 민간은행이 가지고 있는데, 이들 은행이 홍콩달러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달러화를 예치해야 하는 “미국달러 본위제”를 시행하고 있음.
- 또한, 홍콩의 금리는 미국의 금리에 연동되어 결정되고 있음.

- 따라서, 홍콩은 환율과 금리가 미국과 연동되어 있다는 점에서 자본의 투자수익률도 기본적으로 미국과 유사해지는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.
- 더욱이, 홍콩은 중국에 대한 투자기회가 미국보다 크다는 점에서 볼 때, 자본의 투자수익률은 미국보다 홍콩이 더 큰 경향이 있음.
- 이렇게 볼 때, 홍콩이 금융허브로 부상한 것은 환율이 안정되어 있고, 금리가 미국과 연동되어 있다는 점, 중국에 대한 투자기회가 많다는 점 등 환율, 금리정책과 배후지로서 중국의 존재 등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.

(4) Hong Kong Convention and Exhibition Center

- "2012 Hong Kong International Fur & Fashion Fair" 참관
- 홍콩의 모피 박람회는 매년 개최되며, 금년에는 2월 25일- 2월 28일 기간동안 홍콩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됨.
- 홍콩의 모피 박람회는 세계 최대의 박람회로서, 특히 독일, 러시아, 동유럽 등 국가들의 참여가 두드러짐.
- 한국의 업체들도 몇 개의 업체가 박람회에 참여하였음; 한국의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면담에 의하면, 동 박람회는 바이어의 입장에서 싸고 좋은 물건을 살 수 있고,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전세계로부터 다양한 바이어들이 몰려들어 매력적이라고 함.
- 동 박람회에 전시된 물건들은 현금으로 현장에서 직접 구입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함.
- 홍콩은 연간 500여개의 전시회 및 컨퍼런스가 개최되며 국제규모의

전시회는 약 150개 정도라고 함.

- 국제규모의 전시회 중 약 100여개가 홍콩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고 함.
- 연중 개최되는 각종 박람회에는 중국, 동남아, 러시아, 중동 등 세계 각국의 바이어가 참가하여 정보를 수집하고, 제품을 거래하며, 업계간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비즈니스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음.
- 최근에는 중국 비즈니스가 확대되면서 중국 진출을 노리는 기업들의 교두보가 되고 있음.

□ 공간 활용

- 홍콩의 전시장외에도, 홍콩은 좁은 토지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“공간 활용” 방식이 매우 인상적임.
- 홍콩은 건물과 건물사이를 연결하는 땅위의 도보를 만들어서 한정된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방식이 보편화되어 있음.
- 예컨대, 지하철역에서 하차하면 주변의 거의 대부분의 건물들이 땅위의 도보 거리로 연결되어 있어, 심지어 비가 내려도 우산없이 도심의 땅위로 찾아다니는 것이 가능함.
- 이처럼 사람들이 땅위의 도보로 이동함에 따라 지상의 횡단보도 수도 최소한으로 되어 자동차들의 원활한 소통에도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평가됨.

3. 베트남 방문 내용

□ 베트남 경제현황

- 2007년 WTO 가입 이후 베트남 경제는 외국인투자 유치 등에 힘입어 빠른 성장세를 달성하였음.
 - 베트남 경제규모는 2007년의 715억 달러에서 2011년에는 1,205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며, 일인당 GDP도 동기간 중 835억 달러에서 1,300억 달러로 증가하여 중소득국 대열에 진입하고 있음
 - 베트남의 교역규모는 수출이 2007년의 485억 달러에서 2011년에는 963억 달러로, 수입이 628억 달러에서 1,058억 달러로 증가하면서 지난 5년간 거의 2배 수준으로 증가하였음.
- 그러나 산업 기반이 취약한 상태에서 급속한 개방이 이루어짐에 따라 무역수지 적자 확대, 베트남 통화(동화)가치의 하락, 물가상승이라는 부작용도 노출되고 있음.
 - 베트남의 무역적자는 WTO가입 직후인 2008년에는 180억 달러까지 증가하였으며, 이후 적자규모가 다소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만성적인 적자를 보이고 있어 경제성장의 장애요소로 작용
 - 만성적인 무역적자와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베트남의 통화가치는 계속 하락하여 동화환율은 2007년의 달러당 16,000동대에서 2011년에는 21,000동대로 상승
 - 또 임금상승과 통화가치 하락 등으로 물가상승률도 매년 10% 내외의 높은 수준을 기록

베트남의 주요 경제지표 추이

	2007	2008	2009	2010	2011
GDP(억달러)	715	890	915	1,046	1,205
경제성장률(%)	8.5	6.2	5.3	6.8	5.9
1인당GDP(달러)	835	1,052	1,064	1,168	1,300
환율(동/달러)	16,019	17,400	18,497	19,500	21,036
물가상승률(%)	12.6	22.6	6.9	9.2	18.1
수출(억달러)	485	627	571	716	963
수입(억달러)	628	807	699	840	1,058
무역수지(억달러)	-143	-180	-128	-124	-95

자료 : 한국무역협회, 호치민 지부(자료원: 베트남 통계청)

○ 더욱이 무역의존도가 높은 베트남 경제는 지난해 이후 최대 수출시장인 미국의 경기침체와 유럽의 재정위기로 수출이 둔화되고 있으며, 이에 따라 주요 수출산업인 섬유, 신발산업 등을 중심으로 타격이 가시화되고 있음.

- 임금상승 등 생산비 증가로 인한 경쟁력 약화와 인플레이 억제를 위한 정부의 긴축정책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해외 수요 둔화마저 겹쳐 2012년은 베트남경제에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.

□ 베트남의 외국인투자 현황

○ WTO 가입 직후 베트남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2007년 213억 달러(신고기준), 2008년 640억 달러로 급증하였으나 2009년 이후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로 외국인투자가 다소 주춤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.

- 2010년 186억 달러, 2011년 147억 달러

○ 투자 대상 업종별로는 WTO 가입 직후인 2008년까지는 양질의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한 제조업의 비중이 더 높았으나, 고부가가치

산업보다는 주로 섬유 등 노동집약적인 산업에 집중되었음.

- 중국과는 달리 베트남에 대한 외국인투자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의 투자가 부진한 것은 숙련 노동력의 부족, 낮은 생산성, 열악한 인프라, 전후방 연관산업의 부족 등이 고급기술을 보유한 외국인기업의 투자에 한계로 작용하였기 때문임.
- 그러나 2009년 이후에는 급속한 임금 상승 등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제조업 투자보다는 부동산 개발 및 자원개발 등에 투자가 집중되고 있음.
 - 제조업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낮아지면서 건설, 부동산 개발 등에 자본이 유입됨에 따라 급속한 물가 상승 등 경제전반의 거품 형성 등 금융시장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.
- 국별로는 홍콩, 일본, 싱가포르, 한국, 중국, 대만 등 주로 아시아 국가들이 투자 상위국을 형성하고 있으며, 미국 등 서방 선진권의 투자 비중은 높지 않음.
 - 누계 기준으로는 2011년 현재 한국이 236억 달러로 가장 많으며, 이어 대만, 일본, 싱가포르, 말레이시아 순임.

□ 베트남의 투자 환경

- 베트남에 대한 긍정적인 투자 요인으로는, 지리적 요충지(아세안에서의 접근성),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, 정치적 안정, 빠른 경제발전과 내수시장 확대 가능성, 풍부한 천연자원 등을 들 수 있음.
 - 베트남은 2000년대 들어와 개방과 외자유치에 힘입어 2007년 교역 1,000억 달러, 2010년 경제규모 1,000억 달러를 달성하는 등 빠른 성장을 나타내면서 유망 신흥시장으로 부각하고 있음.

- 또 2008년 일인당 소득 1,000달러를 돌파해 중소득국 대열에 합류한데다, 높은 성장잠재력과 9,000만명에 근접한 인구를 바탕으로 거대 소비시장으로서 주목을 받고 있음.
- 여기에 중국에 비해 저렴한 풍부한 노동력과 외자유치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(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조건 개선, 외국인근로자 관련 규제완화, 도소매업 및 유통업 시장 완전 개방 등)도 외국인 투자에 대한 긍정적인 요인임.
- 반면, 부정적 요인으로는 인프라 부족, 복잡한 행정시스템과 법규 미정비, 임금과 물가의 급속한 상승, 환율 불안정성, 전후방 연관산업의 미발전, 숙련공 부족 등을 들 수 있음.
- 베트남은 만성적인 전력부족국인데다 도로, 항만, 의료시설 등 인프라 시설이 취약하며, 전후방 연관산업의 부족 등은 생산비 상승 요인으로 작용
- 2007년 WTO 가입 이후 경제성장과 외국인 투자 확대로 노동시장의 수요가 확대되면서 인건비가 빠른 속도로 상승(2007~2011년 외국인투자기업의 임금수준은 매년 10~15% 정도 인상)한데다, 사무실 및 공단 임대료도 크게 상승
- 환율 및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베트남 정부의 긴축정책도 외국인투자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, 물가상승에 따른 노동자의 임금상승 요구와 파업 확산도 최근 들어와 더욱 빈번

□ 한국의 베트남 투자

- 한국업체의 베트남 진출은 2006년 750개에서 2011년 2,300개, 2012년 3,000개 정도로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며, 베트남에 대한 외국인투자액도 누계기준으로 최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음.

-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74%(업체수 기준)로 가장 많으며, 건설업(8%), 도소매업(6%), 부동산업 및 금융·보험업(각 5%) 등의 순임.
 - 제조업의 경우 점유가 가장 많으며, 다음으로 전자·전기, 신발·가죽, 금속 등 주로 노동집약적인 산업에 집중되어 있음.
- 한국에 대한 베트남인들의 인식은 제조업 진출에 따른 고용확대와, 유교문화·교육열 등 문화적 정서 공유, K팝·한류·드라마 등으로 인해 대체로 우호적인 편임.
 - 중국에 대해서는 영토분쟁·저가상품 이미지 등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, 한국은 고품질·기술 제품 생산 국가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편임.
- 한국업체의 진출시 애로사항으로는 최근 급격한 임금상승을 가장 크게 지적하고 있으며, 법규미정비(공무원의 인식 부족 및 자의성), 언어장벽 등을 들고 있음.
 - 임금이 급상승하면서 진출기업들이 채산성 압박을 받고 있는데다, 물가상승에 따른 과도한 임금인상 요구와 파업 확대로 일부 섬유업체들은 도산에 이르고 있음.
 - 또 물가억제를 위한 베트남 정부의 긴축정책으로 고금리로 인한 영업 부실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임.
 - 진출기업들은 현지인력의 채용을 확대하려는 입장이나, 한국어와 베트남어를 동시에 구사할 수 있는 인력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, 한국어교육을 위한 세종사업도 어학당 부족으로 인해 순조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.
- 이에 따라 섬유 등 일부 노동집약적인 업체들은 노동력과 자원이

풍부한 미얀마로의 생산기지 이전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으나, 미얀마는 아직까지 산업인프라가 전무한 실정이어서 당장 실현되지는 않고 있음.

□ 향후 진출 유망분야

- 임금상승 등으로 섬유 등 노동집약적인 산업의 투자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앞으로 베트남에 대한 투자는 산업인프라, 플랜트 건설 등 진출패턴의 변화가 예상됨.
 - 베트남은 여전히 노동력이 풍부한 국가이나, 임금상승과 통화가치 불안 등으로 투자매력은 과거에 비해 현저히 감소하고 있음.
 - 반면, 산업 인프라, 플랜트는 공기업 발주, ODA 자금 활용 등 안정적인 재원으로 투자손실의 위험이 작고, 파생 프로젝트와 부품 수요로 수출연계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기대됨.
 - 다만, 산업인프라의 경우 주로 관급공사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부 재정이 취약하고 공사에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리스크가 적지 않아 국내업체의 리스크 완화를 위한 중장기 무역보험 등의 확충이 필요함.
- 산업 인프라와 관련, 한국이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전력, 도로, 의료 등의 투자확대가 유망함.
 - 베트남은 만성적인 전력부족국으로 산업발전에 필수적인 발전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과제이며, 이에 따라 한국의 원자력 기술을 활용한 발전설비 수출 가능성이 앞으로 증대될 것임.
 - 또한 베트남의 도로 사정도 열악하기 때문에 ODA 자금 등을 활용하여 베트남의 도로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향후 장기적인 도로

인프라 확충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.

- 병원 등 의료분야도 베트남이 상당히 취약한 부분으로, 소득수준이 향상될수록 이에 대한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.
- 제조업의 경우 단순한 인건비 절약 차원의 노동집약적 산업보다는 IT 등 기술집약산업의 투자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.
- 베트남의 IT산업은 아직 초기단계에 있지만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어 장기적인 투자효과가 기대되며, 베트남 정부도 인센티브 혜택과 공단 조성 등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음.
- 일본의 경우 최근 들어와 베트남의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나 전자상거래시장, 통신기기 시장 등에 적극 진출하고 있는데, 이는 단기적인 수익보다는 장기적인 시장선점 효과를 겨냥한 것임.

□ 한·베트남 교역

- 베트남의 교역상대국으로서 한국은 베트남의 수출 4위, 수입 2위국(2011년)으로 최근 들어와 한국은 베트남의 가장 중요한 교역국 중 하나임.
- 우리 수출시장으로서 베트남의 위상도 2005년 18위에서 2007년 13위, 2011년 8위로 최근 들어와 급격히 상승하고 있음.
- 한국의 대베트남 주요 수출품목은 무선통신기기 부품, 철강판, 석유제품, 합성수지, 편직물, 반도체, 자동차 등임.
- 대베트남 수출은 주로 섬유, 전자 등 현지 진출 기업들의 생산활동에 소요되는 원부자재가 대부분이나, 자동차의 경우 베트남의 소득수준이 상승되면서 한국산 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.

- 최대 수출품목인 무선통신기기 부품은 삼성전자가 베트남에서 휴대폰을 생산하면서 최근 들어와 수출이 급증하였음.
- 반면, 대베트남 주요 수입품목은 원유와 의류, 신발, 석탄, 수산물 등 1차산업 제품이거나, 현지 진출 한국기업들이 생산한 제품의 역수입임.
- 양국간 교역구조의 차이로 인해 한국의 대베트남 교역은 만성적인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, 흑자규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.
- 대베트남 무역흑자 : 2005년 27억 달러→ 2011년 84억 달러

□ 한·베트남 FTA 추진

- 한국의 대베트남 투자와 교역규모가 급속히 확대되면서 한국과 베트남간의 FTA 추진이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음.
- 한·ASEAN FTA가 발효중에 있으나 시장개방의 폭과 대상분야가 미흡하기 때문에 상품, 서비스, 투자 외에 지적재산권 등 더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한 FTA체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임.
- 한·베트남 FTA가 체결될 경우 한국기업들은 기술집약산업의 대베트남 투자를 확대하고, 서비스시장 개방에 따라 의료분야 등의 진출을 기대하고 있음.
- 그러나 현재 베트남의 경제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당장 FTA가 체결될 것으로는 기대하지 않고 있으며, 기업들의 관심도 최근 들어와서는 크지 않은 편임.